

# 평균가격 제외하고 등급별 가격만 공시해야

## 서울농공 시세발표 '육질등급별' 여론 확산 전국 - 서울 평균가격 차이로 양돈농가 피해

농협 서울축산물공판장의 시세발표가 경매 당일 비육돈 평균가격은 공시하지 않고 육질등급별 평균가격만 공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양돈협회는 현재 많은 양돈농가들이 서울농협공판장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육가공업체와 거래를 하고 있는데, 서울농공 시세가 전국시세보다 낮은 등락폭으로 인하여 양돈농가들의 경영에 피해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육질등급제도가 도입됐고, 육질등급제의 정착과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비육돈 평균가격 대신 육질등급별 평균가격을 발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서울공판장 또한 평균가격은 출하된 모든 비육돈을 가지고 산정하기 때문에 암·수 비율이나 품질 등 당일 어떤 돼지가 출하되느냐에 따라 가격등락이 심하게 변경되는 등 실제가격 동향을 왜곡시키는 경우가 있다면서 육질등급별 평균가격만 공시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양돈협회에 따르면 올 10월까지 전국시세와 서울시세의 차이는 지육kg당 월평균 1백47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2006년 같은 기간의 1백38원보다 6.5%가, 2005년의 1백13원 보다는 무려 28.9%가 각각 높은 것으로 최근 3년간 전국시세와 서울시세의 차이가 더욱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결국 이 기간동안 서울시세를 적용, 돼지가격을 정산하고 있는 양돈농가들의 수익 역시 전국시세

적용 농가보다 매년 감소해 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세가 아닌 전국시세 적용을 받기 위한 양돈업계 차원의 개선 노력이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한편 올들어 전국시세와 서울시세가 가장 큰 차이를 보인 것은 지난 8월로 무려 2백46원을 기록했으며 7월이 2백5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표 1> 최근 3년간 월평균 전국시세와 서울시세 차이 (kg/원)

	2007년	2006년	2005년
1월	105	106	109
2월	119	159	60
3월	97	179	87
4월	106	145	88
5월	140	118	97
6월	142	147	107
7월	205	191	189
8월	246	86	166
9월	171	114	148
10월	136	135	86

한편 양돈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조사한 설문결과, 서울공판장의 육질등급별 평균가격만 공시하는 것과 관련하여 응답자들의 61%(49명중 30명)가 이 같은 시세발표 변경에 찬성 공감했으며, 도입 시기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견 차이는 있었으나 즉시 변경해야 한다는 응답이 찬성하는 사람들의 반 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양돈**